

마태 17

- 1. 왕께서 영화롭게 변화됨심.....1
- 2. 왕께서 마귀 들린 아이를 고치심.....3
- 3.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고하심.....4
- 4. 왕께서 공세를 내심.....5

1. 왕께서 영화롭게 변화되심

(마 17:1)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

(마 17:2)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.

(마 17:3) 보라,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

(마 17:4)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, [주]여,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,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,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, 하더라.

(마 17:5) 그가 아직 말할 때에, 보라,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, 보라,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,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[아들]이라.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, 하시므로

(막 9:1)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[하나님]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, 하시니라.

(막 9:2) ¶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

(막 9:3)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의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.

(막 9:4)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

(막 9:5)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기를, 선생님이여,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,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,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, 하니

(막 9:6)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

(눅 9:28)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.

(눅 9:29)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.

(눅 9:30) 보라,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.

(눅 9:31)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

(눅 9:32)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.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

(눅 9:33)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, 선생님이여,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,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, 하나는

(마 17:6)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.

(마 17:7) 예수님께서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, 일어나라. 두려워하지 말라, 하시매

(마 17:8)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.

(마 17:9)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, 사람의 [아들]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, 하시니

(마 17:10)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,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? 하매

(마 17:11)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,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.

(마 17:12)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. 사람의 [아들]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, 하시매

(마 17:13)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[침례자]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.

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.

(막 9:7)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,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[아들]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, 하시므로

(막 9:8)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 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.

(막 9:9)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[아들]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

(막 9:10)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.

(막 9:11) 그들이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,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? 하매

(막 9:12)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,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며 사람의 [아들]에 대하여는 기록된바 그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.

(막 9:13)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참으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하고자 한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, 하시니라.

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,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.

(눅 9:34)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므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

(눅 9:35)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,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[아들]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, 하시더라.

(눅 9:36) 그 음성이 지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.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.

2. 왕께서 마귀 들린 아이를 고치심

(마 17:14)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,

(마 17:15) [주]여, 내 아들에게 공황을 베푸소서.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속에 빠지나이다.

(마 17:16)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, 하매

(마 17:17) 이에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여 이르시되,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,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?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?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, 하시고

(마 17:18) 예수님께서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오니라.

(마 17:19)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,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? 하매

(마 17:20)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.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진대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,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 가라, 하면 그것이 옮겨 갈 것이요,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

(막 9:14)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.

(막 9:15)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더라.

(막 9:16)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,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? 하시니
(막 9:17)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, 선생님이여,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.

(막 9:18) 그가 그를 아무 데나 데려가서 쥐어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.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, 하매

(막 9:19)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,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,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?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?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, 하시니

(막 9:20)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으므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.

(막 9:21)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,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? 하시니 그가 이르되, 어릴 때부터이니다.

(눅 9:37)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더라.

(눅 9:38) 보라,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, 선생님이여,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. 그는 나의 유일한 자식 이니이다.

(눅 9:39) 보소서, 한 영이 그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또 그를 쥐어뜯어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.

(눅 9:40)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, 하매

(눅 9:41)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여 이르시되,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,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용납하리요?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, 하시니

(눅 9:42) 그가 올 때에도 마귀가 그를 거꾸러뜨리고 쥐어뜯으매 예수님께서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낮게 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주시니라.

도 없으리라.

(마 17:21)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, 하시니라.

(막 9:22)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.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, 하매

(막 9:23)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,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, 하시니

(막 9:24)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, [주]여, 내가 믿나이다.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, 하더라.

(막 9:25)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,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,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, 하시매

(막 9:26)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, 그가 죽었다, 하나

(막 9:27)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.

(막 9:28)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,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? 하매

(막 9:29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, 하시니라.

3.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고하심

(마 17:22) ¶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사람의 [아들]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

(마 17:23)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,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.

(막 9:30) 그들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니

(막 9:31)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, 사람의 [아들]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, 그가 죽임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, 하셨기 때문이라.

(막 9:32)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.

(눅 9:44)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. 사람의 [아들]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, 하셨으나

(눅 9:45)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.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.

4. 왕께서 공세를 내심

(마 17:24)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공세 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,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? 하니

(마 17:25) 그가 이르되, 내신다, 하고 집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, 시몬아, 네 생각은 어떠하나?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? 자기 자식들에게서냐, 타인들에게서냐? 하시니

(마 17:26)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, 타인들에게서니이다,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,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리라.

(마 17:27)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 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. 네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, 하시니라.